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회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시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어린이의 가치를 일깨우신 예수님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

Tag: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요즘은 어린이의 가치가 두루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인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고, 1937년부터 일본에 의해서 금지되었다가 1946년 5월 5일, 5월 첫 번째 주일에 어린이날로 정하여 그 다음해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그 전에는 5월 첫 번째 주일)

장유유서 문화가 깊은 한국으로서는 어린이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뜻깊은 날이다.

이후부터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나라의 큰 사업이 되었다. 그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지금은 1년 365일이 어린이 날이고 어버이날이다. 그만큼 가족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시 어린이를 최초로 소중히 여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주장하셨다. 구약성경에도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소중함을 다룬 구절은 없다.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생각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신 소중한 말씀들이다.

오늘 말씀은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으며,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뵈는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의 상황에 매우 민감하시며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의 대책을 실행에 옮기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쁜 경험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혹 부득불 나쁜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특히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원하신다. 왜냐면 그런 상처가 그 아이의 평생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느 영혼도 하찮은 존재는 없다.

㉟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을 감사하나이다 (마11:25)

하나님의 계시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 보다 순전한 자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마음이 멍들지 않고 순전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멍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도와 달라고 해야 한다. 나는 부족하오니 도와 주소서. 나는 겁이 많습니다. 도와 주소서.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시기심이 많습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 잘 책임을 망각합니다. 등등.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18:3)

물론 이 어린아이는 마음이 멍들지 않는 상태의 어린아이를 말한다.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렸을 때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이 멍들었기 때문에 특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18:4)

-아이는 스스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낀다. 어른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함을 느끼고 어른을 의지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진짜 건장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썩척, 아는척, 잘하는척 하는 약한 사람일 뿐이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18:5)

-그 아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배려해서 그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필요한 화를 내거나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19:14)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 10:16)

-아이를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말라. 벌이 꽃 위에 앉을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듯이 아이를 축복할 때 영생이 시작된다.

신구약 모두 어린이에 대한 언급은 약 40개 정도로 비슷하지만, 분량을 따진다면 신약이 3배는 많다.

구약에서 어린 사람을 언급할 때는 사실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에는 진짜 어린이를 언급하셨다.

구약에서는 어린이의 영혼이나 인격이나 존재 자체의 존엄성을 언급한 곳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많은 구절에서 어린이의 영혼이나 순수함이나 존귀함의 가치를 언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이날의 정신을 가장 먼저 선포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이가 존귀하다고 해서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을 존중한 것은 아니다.(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원래는 천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천재성을 잃어간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발달의 시기를 놓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존재의 가치를 귀히 여겨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즉, 어린아이가 존귀하니 그 말이나 행동을 섬기고, 그를 세자 모시

듯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두라는 의미도 아니다. (사실 세자도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지 못했다. -아니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취향이나 결정권이나 자율성은 부모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부모는 왜 아이에게 범위를 정해주는가? 그것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성껏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우치신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도 배우고 양육 받는다. 양육을 통해서 어린이는 성장하고, 부모는 비로소 부모로 성장한다.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마태복음 개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인의 '교과서'같은 책

신약성경과 사복음서의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마태복음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정통성과 신약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보여 주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신약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완성된 구원 앞에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저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세리 마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매우 생생히 전해 주는 책입니다. 이로써 저자가 공생애 기간 내내 주님과 동행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9:24).

·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16:12)

·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

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9:14, 금식 논쟁의 당사자에 대한 구별된 언급으로, 마가복음 2:18에는 ‘사람들’로, 누가복음 5:30에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로 기록됨).

또한 저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미화하거나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 합니다.

-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마 19:14; 막 10:14)
-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부분을 삭제함(마 12:22-32; 막 3:21)
-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불신, 우둔함, 두려움)을 언급하지 않음(마 13:16-19; 막 4:13· 마 14:33; 막 6:51-52)
-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림(마 20:20; 막 10:35,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의 출세를 청탁한 행동을 어머니의 욕심 때문으로 기록함. 마가복음 8:14-21의 병행 본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 줌)

아울러 저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세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본문 여러 곳에 세리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10:3, ‘세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함. 마가복음 3:18과 누가복음 6:15에서는 이름만 언급함)
-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9:10)
-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9:11)

·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11:19).

·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18:17)

·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21:32).

또한 당시의 ‘화폐’(동전)에 대해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저자는 ‘돈’을 다루는 일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 앓사리온(10:29)

· 세겔(17:24, 27)

· 데나리온(18:28; 20:9; 22:19)

예수님의 제자들 중 로마 정부를 위해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하며 잔뼈가 굵어진 마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일에 익숙하며 수완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달리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9:10, 마가복음 2:15에는 ‘그의 집’으로, 누가복음 5:29에는 레위라는 유대식 이름으로 기록함)

본문에 나타난 이상의 특징을 볼 때,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세리 출신 마태가 이 책의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핵심 성구(Key Verse)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 27:37)

3. 주제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며, 열방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요 메시아이시다.

4. 기록된 시기: AD 60-70년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50년 이전, 70년 이후 등) 그러나 마태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을 감안하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저작 연도인 55-68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음의 유대적 배경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공관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함(16:18)
-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특히 '제자도'의 메시지를 강조함
- 회당 가운데 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5:23)

5. 독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1) 유대적 배경을 전제로 기록함

- ① 라가(5:22, 히브리인의 욕설)
- ② 분봉 왕 헤롯(14:1)
- ③ 손을 씻는 정결 의식(15:2,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은 7:3-4에서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임)
- ④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5:20)
- ⑤ 유대인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사용: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후손)

- ⑥ 감히 ‘하나님’을 발음할 수 없는 유대인 독자를 위한 표현
 - ‘하나님 아버지’대신 ‘하늘 아버지’사용(6:14,26,32; 15:13; 18:35)
 - ‘하나님 나라’대신 ‘천국’사용(18:1,3,4,23; 19:23)
- ⑦ 유대의 ‘완전수’에 따른 구성
 - 다섯 가지의 가르침: 산상수훈(5-7장), 제자 파송 시(10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13장), 감람산 설교(24장)
 - 7의 강조: 일곱 가지 간구(6:9-13), 일곱 귀신들(12:45), 일곱 가지 비유(13장), 일곱 개의 떡과 광주리(15:34,37), 일곱 번의 용서(18:22), 칠 형제(22:25), 일곱 번의 ‘화 있을진저’(23장)
 - 3의 강조: 족보의 삼등분(1:1-17), 세 번의 시험(4:1-11), 세 번 부인(26:69-75), 세 번 질문(27:11-17), 세 종류의 경건(6:1-18)

2) 구약성경을 전제로 기록함

- ① 옛 사람에게 말한 바(5:21,33)
- ② 너희가 들었으나(5:27,33,38,43)
- ③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7:12)
- ④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11:13)
- 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5:17)
- ⑥ 거짓 선지자(7:15)
- ⑦ 제사장이 행하는 정결 의식(8:4)
- ⑧ 구약 선지자와 구약 성경의 잦은 언급과 인용
- ⑨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12:5)
- ⑩ 구약의 인물과 유대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 언급(모세보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강조함)

3) 유대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기록함

- ① 이방의 갈릴리(4:15) 이사야(9:1)인용
- ②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5:47)
- ③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5:47)
- ④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6:32)
- 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10:5)
- ⑥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10:6)

6. 구성

1:1-4:16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 준비	4:17-16:20 선포	16:21-25:46 고난	26: 죽으
-----------------------------------	------------------	-------------------	-----------

1:1-4:11 출생과 준비			
4:12-7:29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4:12-25 초기사역		
	5-7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7:28 예수 마치시매	
8:1-11:1 하나님 나라의 권세	8:1-9:34 갈릴리에서의 기적		
	9:35-11:1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11:1 예수 마치시매	
11:2-13:53 요구와 적대	11:2-12:50 점점 거세지는 적대감		
	13:1-13:53		

	하나님 나라의 성장	13:53 예수 마치시대
13:54-18:35 진정한 메시아	13:54-17:27 제자훈련으로 물러남	
	18:1-35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19:1-25:46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 심	19-23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19:1 예수 마치시대
	24-25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	
26-28장 죽음과 부활		26:1 예수 마치시대

장	1-4	5-7	8,9	10	11,12	13	14-17	18	19-22
이야기	메시아의 출현		열 가지 이적		유대인의 배척		제자들의 신앙 고백		권위와 초대
설교		제자의 삶		사도 직		하나님 나라의 비유		교회	

1-4장	5-7장	8-11:1	11:2-13:	13:54-19	19:2-
------	------	--------	----------	----------	-------

왕의 계보 (소개)	왕의 메시지	왕의 권위 (확증)	53 왕국의 비밀	:1 겸손의 왕	1 합당치 것들에 심판
---------------	--------	---------------	--------------	-------------	-----------------------

1-20장 비(非) 예루살렘	21-28장 예루살렘
--------------------	----------------

7. 기록된 이유

1) 복음전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참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

2) 교회를 위한 복음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설교)을 통해 신생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함

3)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유대 민족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함

8. 교과서적인 특징: 마태복음은 가르침의 책이다

1) 마태복음의 서두: '책'

복음서는 그 내용의 성경을 대변하는 단어와 표현을 처음에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임을 규정합니다(1:1). 이것은 마가복음이 설교적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내력'이라는 표현으

로 시작하는데(‘내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디에게시스’는‘설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음) 이것은‘우리 중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1:1-2). 즉 누가복음이‘설명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은 서두에 복음서를‘계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1:1). 여기서‘계보’로 번역된‘비블로’는‘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교과서’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제자로 삼아...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28:18-20)을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이 교육 지침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2) 가장 많은 가르침

마가복음은 믿음으로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설교로‘이적’과‘사건’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151회). 마가는 마지막 16장에서 독자를 주님의 빈 무덤 앞에 이끌고 가서‘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나 마태는 모든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 다루며‘완성된 구원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7장, 10장, 13장, 18장, 23-25장의 다섯 개의 강론을 포함하여 공관복음서 중 가장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3) 율법(순종)과 의의 강조

마태복음 전반에 깔려 있는‘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해석자이며 완성자’라는 메시지는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고(5:17-20) 율법의 정신이‘사랑’임을 설명하며(5:43-48;22:36-40),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는'서기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13:52).

4) 교회 중심적인 복음 제시

공관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마태복음은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16장)교회의 질서와 처리 문제(18장)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모두 '사도적 권위'(목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예식에 사용된 것과 같은 내용들(6:9-13; 눅 11:2-4의 주기도문과 비교)이나, 주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마가복음의 시작과 종결이 갑작스러운 것과 달리) 성탄절과 부활절에 관련된 교회의 예배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내용(28:18-20)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5) 선교적 메시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네 명의 이방 여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기록은, 예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메시아임을 보여 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혹은 이방인에게 사역하시고, 이방을 향해 전파될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기록이 다수 등장합니다.

- 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 동방의 현자들(2장)
- ② 백부장의 믿음(8:5-10)
- ③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15:21-28)
- ④ 가다라 지방에서 복음 전파(8:28-34)
- ⑤ 이방인의 회개를 높이 평가함(니느웨 남방 여왕 12:41-42)
- ⑥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잔치 비유 10:16-18;

12:17-21; 22:9 · 말세 24:14 · 향유를 부은 여인 6:13)

⑦ 달란트 비유에서 모든 민족의 심판(25:32)

⑧ 지상 명령(28:18-20)

6)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 외의 가르침들

①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5-7장)

② 범죄한 신도의 상담(18장)

③ 유대인이 율법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5:17-48)

④ 왜 주변 사회가 교회에 적대적인가?(10:16-42)

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가?(21-25장)

⑥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1:22-23),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18:20),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28:20)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 마태복음 I II
예수전도단 참조.